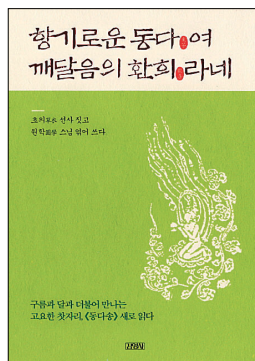




원학 스님은 18일 북콘서트에서 초의선사가 <동다송>을 펴낸 의미는 '나눔과 회향' 이었다고 강조했다. 사진왼쪽은 김문주 아나운서



정목 스님이 진행한 진오 스님(오른쪽 두번째)의 북콘서트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사연이 소개돼 감동을 선사했다.

북콘서트 현장

茶 · 禪 수행 · 생명존중은 '나눔' 에서 출발

“생명존중 · 삶의 여유를 되돌아 보자”

원학 스님, <동다여...> 북콘서트서 강조

“200년 전 초의 스님은 동다송에서 ‘다성이 불성이다’는 말로 생명의 가치와 인간의 심성에 주목했습니다. 종교를 떠나 당대 유학자 등 지식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초의 스님의 사상을 되돌아보며 세월호의 아픔을 달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학 스님(봉은사 주지)은 5월 18일 서울 조계사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린 저서 <행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환희라네> 출간기념 북콘서트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원학 스님의 <행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환희라네>는 우리나라 차 문화를 대표하는 저서인 초의선사의 ‘동다송’에 수행자로서 스님의 해설을 담은 책이다. 전문이나온서 김문주 씨와 함께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400여 대중이 운집해 스님의 말을 경청했다.

이날 북콘서트에서 원학 스님은 선수행의 의미와 책 속의 이야기 등을 청중들과 나누고 직접 친필 사인회를 진행했다.

먼저 원학 스님은 “200년 전 초의 스님께서 말하고자 하신 차가 곧 수행이라고 하는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정신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전달하고자 번역 해설했다”고 집필의도를 전했다.

스님은 “집필과정에서 초의선사의 차인의 모습 뿐만 아니라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며 “모두가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기쁨은 ‘나눔’인데 초의 선사는 차를 통해 느낀 깨달음을 대중에게 회향하기 위해서 동다송을 지었으며 저 또한 공부한 바를 회향하기 위해 이번 책을 내게 됐다”고 회향차원에서 이번 책을 출간하게 됐음을 설명했다.

스님은 오늘날 초의 선사의 다선일미 정신을 되살려야 하는 이유로 종교의 벽을 넘은 소통과 생명존중 등의 가치를 들었다.

한국불교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조계사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북콘서트가 18일과 19일 양일간 연달아 열려 눈길을 끌었다. 그 화제의 주인공은 ‘동다송’을 풀어 쓴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과 ‘달리는 스님’ 진오 스님. 원학 스님은 대중들이 접하기 힘든 차의 세계를 보다 쉽게 해설하는 편안한 대화형식의 콘서트로, 진오 스님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마라톤을 하게 된 계기 등을 진솔하게 풀어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북콘서트가 열린 조계사에는 양일동안 입주의 여지없이 불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책을 계기로 두 스님의 삶의 철학을 듣고 공감하며 그 감동을 함께 했다.



원학 스님의 북콘서트에는 불교합창단의 공연도 있었다.

스님은 “초의 스님은 평범한 수행자였지만 승유역불의 시대, 당대 유학자들과 교유를 나누었다. 다선일미 사상은 종교와 이념의 벽을 넘어 당대 지식인들에게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그것은 사람의 심성을 탐구하고 우리 삶을 향기롭게하는 ‘차의 힘’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오늘날 세월호 참사는 사회병폐를 만든 우리 모두의 공업”이라며 “진정한 환희는 멀리 있지 않다. 서로를 돌아보고, 여유를 갖고, 심성을 맑게하며, 자연을 아끼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콘서트는 참석자 대중에 스님에게 차와 초의선사 등에 대해 묻는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날 서울 삼성동에서 온 김명숙 씨는 “평소 잘 알지 못하던 초의선사와 차의세계에 대해 알게된 계기였다”며 “초의선사가 강조한 것이 결국 나눔과 회향이라는 점에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학 스님 “다선은 주변 돌아보는 계기”
초의 스님 <동다송> 저술 의미 ‘회향’
“다선일미”는 생명존중의 또 다른 표현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민 모두의 공업

진오 스님 “어려운 이웃 위해 계속 땀 것”
사람 마음 모으는데서 모금 시작
1km 당 100원씩 총 2200km 뛰어
세월호 희생자 위해 108km 달려



진오 스님과 정목 스님이 진행한 북콘서트

“이웃 돌보기 위해 지구 끝까지 땀 것”
진오 스님, <혼자만 깨우치면...>서 다짐

“달리는 스님”으로 알려진 진오 스님(대문사 주지)은 “가진 것도 없고 제대로 엮볼도 할 줄 몰랐지만 어려운 사람 돕고 싶었기에, 마라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었다”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지구 끝까지 땀 것”이라고 밝히 대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진오 스님이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혼자만 깨우치면 뭘 하겠는가> 북콘서트에서 밝힌 각오다.

불교계 명진행자 정목 스님과 함께 대화 형식으로 콘서트를 진행한 스님은 “모금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배운 것이 ‘모금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닌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는 점”이라며 “단순히 돈을 모으려고 프로그램을 들었던 나에게 이런 가르침은 크게 다가왔다. 이후 진심으로 달려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슈를 만들고 기금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육체적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었으며 ‘스님’이 이런 일을 하니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며 도움을 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사를 표했다.

진오 스님이 마라톤을 하게 된 첫 계기는 무엇일까. 스님은 2010년 머리 한쪽을 잘라낸 베트남 청년 토안을 만나며 부터라고 밝혔다.

토안은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뇌수술을 받고 머리 한쪽을 잘라냈다. 하지만 보상은 700만원이 전부였다.

스님은 “한국에서 어렵게 살다가 반쪽 가까이 되는 뇌를 잘라낸 토안을 보면서 미안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스님은 토안을 위해 울트라 마라톤에 나섰다. 그 거리는 108km, 1km 당 100~200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결국 스님은 1000만원을 모아 토안을 도왔다. 이후 스님은 이주노동자, 다문화여성, 통일(탈북)아 이틀, 일본 쓰나미 수재민, 베트남 해우소 설치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 계속 달려왔다. 해외에서도 마라톤을 진행했다. 스님이 지금까지 달린 거리는 2200km에 달한다. 이날 스님은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 108km를 달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할 수 있었던 어린 생명 300여 명이 피어보지도 못한채 저 차가운 바다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달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위로이자 참회였습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목 스님은 스님의 말을 받아 “진오 스님은 고통을 나누고자 정진하는 관세음보살”이라며 사랑을 전하는 달리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오 스님은 콘서트에서 “앞으로는 혼자 달리기 가 아닌 함께 달리는 릴레이 달리를 할 계획”이라며 “릴레이로 마음을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생각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교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고을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 · 부정이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 의 일 정 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